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42장(거룩한 주님께)
※ 교 독 문46(시편104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535장(주 예수 대문 밖에)
예배기도 1부 박기환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사도행전 전도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가복음 2:13-17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영성의 기준 ”
기 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324장(예수 나를 오라 하네)
봉 헌 (중보기도사역팀)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말은이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함경숙권사	본 문 / 마태 16:21	기 도 / 말은이	본 문 / 골3:15-17	예레미야서 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9시
*Acts29 -제3과정 사람	*3강. 사람의 비전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주기도문 / 다같이	소예배실	합침, 중보, 개인기도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현순	다 음 주 기 도	1부	선우명환집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박홍만장로
	헌금위원	9월 최경선 이종열 김연학 김선영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10월 김금자 안해숙 김장숙 최근배		2부	류종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윤승호집사	
헌신찬양	금주	중보기도사역팀	다음주	새신자들봉팀	

영성의 기준 / 마가복음 2:13-17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옵니다. 후회할만한 일을 자신도 모르고 행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곧 가족이나 친구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터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기대감, 곧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우리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그것도 사도바울이 3년이 나 섬기며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엡4:25-29)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18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와 이웃을 분별하는 영성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1.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14절에서 보듯이 주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보통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반역자,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하여 마주 대하지도 않았으며, 법정증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여러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 레위에게서 사도 마태를 보셨고, 다혈질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셨으며, 핍박자 사울에게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장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성녀 마리아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5장에는 주님을 만난 시몬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9장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3.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리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여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회적 인신분과 주변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장례식을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영성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기 위해 오신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영성의 기준입니다.

신앙주제 / 9. 상한 감정의 치유(2013.9.22)

제3과 분노(마음의 불)의 치유(에베소서 4:26-27)

말씀 살피기

성경은 모든 분노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바른 분노를 통해 지켜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1. “분을 내어도”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26절)
2.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26절)
3.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27절)

말 씬

분노는 인간 내면에서 타고 있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탈 때 잘 연소하면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혀 줍니다. 이를 가리켜 ‘의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불이 잘못 타면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가리켜 ‘격분, 울분, 통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 다스리면 해가 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치유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부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격노가 되어 화산이 분출하듯 터져 나오고 맙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후회와 상처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둘째, 분노의 감정을 선한 방향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 모든 분노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지 않고 계속되면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감정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분노의 감정을 놓고 기도함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내면의 아픔을 시원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셋째,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치유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나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한 그 상대를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탄은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적용

1. 평소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려왔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말씀에서 살피본 치유책 중에 지금 내게 가장 절실히 요구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9월 한 달 동안 태신자를 품는 일에 온 교우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품으시고,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교단의 총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군산성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선영 정선례 홍강의 김성희 김홍영 박정일 박지영 최임춘 오복실
곽현석 강진숙 김인순 김기수 신혜영 안복선 김애경 김선주 원혜경
김희숙 이종열 박현순 함경숙 김한순 서영자 윤종원 최세열 조성순
- 감사헌금 : 홍경호 김정민 임환규 임빛나 신공남 구원희 김춘자 김동현 강진숙
박치국 이영란 박광섭 이종춘 심문자 최세열 조성순 무명2
김동현(일천번제)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심승기 함경숙 임병호 김경희 홍강의 김성희 권세갑
김금자 김한순 이득만 윤종원 루디아
- 비전씨앗 : 배영인 황은상 노순영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심복래	3	14,000	10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9	15,000	8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4	16,000		심문자	8	김순님	오복실	허 웅	6	20,000	40	여순애
3	이춘호	함경숙	신공남	2	15,000	200	이종봉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3	16,000	10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김기희	4	14,000	49	임애경	10	장영분	박현순	선우명환	3	12,000	100	노재의
5	이문순	원혜경	윤종원	3	18,000		이문순	계				40	146,000	619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3	10,000	40	강진숙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거룩한 영성은 일평생 쌓아 가는 것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한다. 그러나 결코 한 순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거룩한 영성이다.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훈련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 같이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시키신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된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다. 예수님은 매일 매일 기도와 말씀 목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으로 완성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13).

긍정의 영성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했으므로(민14:7-8)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말씀에 기반하여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 속에서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으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터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긍정의 영성’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나의 해석의 결과입니다. 이상구 의학 박사의 에피소드를 보면 같은 암환자라도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을 갖고 암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세포도 생(生)을 향해 가지만, 체념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도 사(死)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38

2013.9.22.

9 월의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9월 15일 - 남신도주일(바나바, 바울회)
2. 해든솔 선교활동 - 9월 14일(토) 오전8시30분
3. 전교인전도대회 - 9월 29일(주일 찬양예배시간)
4. 교단총회 - 9월 24-27일(군산성광교회)
5. 5개 노회 당회원 체육대회 - 9월 9일

2013년 사도행전 전도축제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

12주 85일의 전도축제

2013년 9월 1일 - 11월 17일

기도로 품고,
마음으로 심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 * 전도축제 기간 중 매일 기도한다.
- * 한 사람이 3사람의 태신자를 품는다.
- * 목 표:
태신자 300명, 전도초청100명, 결신30명.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